

“초여름의 낭만” 무안연꽃축제 오늘 ‘팡파르’

29일까지 일로읍 회산백련지 일원서

워터페스티벌·유등 전시·공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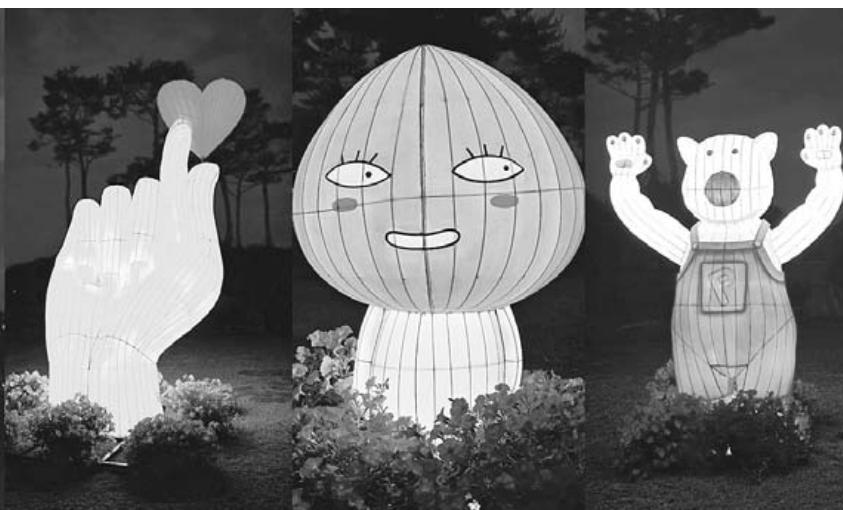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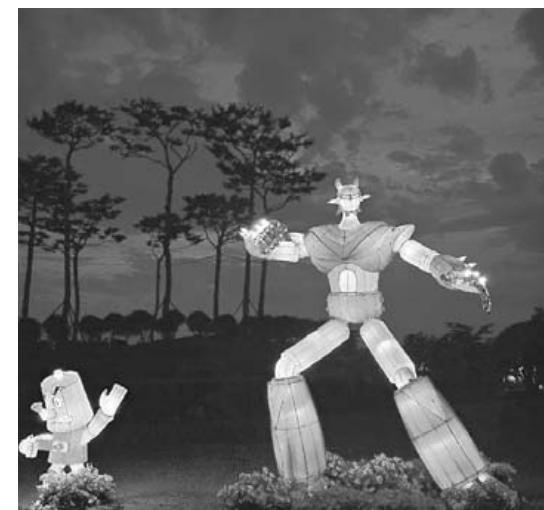
초여름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무안연꽃축제가 열린다.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26~29일 나흘간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제28회 무안연꽃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여름이 켜지는 순간, 무안에서’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과 기획·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초여름의 낭만을 느끼고 싶은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26일에는 박지현과 애녹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27일 한동근, 순순희, 엔분의일이 출연하는 ‘썸온(SUMON) 콘서트’ ▲28일 구창모, 흥서범, 조갑경이 함께하는 ‘대학가요제 리턴즈’와 싸이버거의 ‘댄스 투나잇’ ▲29일 청춘마이크와 박군·강혜연·요요미가 함께하는 ‘태군노래자랑’이 펼쳐진다.

주말인 28·29일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는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특설무대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워터趴 파티 ‘워터페스티벌’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제28회 무안연꽃축제가 26~29일까지 일로읍 회산백련지에서 열린다. 사진은 태권V·뽀로로 등 인기 캐릭터 유등 캐릭터존과(사진 왼쪽) 회산 백련지 전경.

〈무안군 제공〉

실력을 겸비한 DJ와 댄스팀이 함께하는 EDM 파티와 레크레이션 사회자의 신나는 이벤트, 물 대포와 버블건을 활용한 물놀이로 관광객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예정이다.

또한 태권V·아이언맨·뽀로로 등 인기 캐릭터 20여 종의 유등을 전시한 유등 캐릭터존, 해바라기와 수국 등 여름꽃으로 꾸며진 포토존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일로읍 상권과 연계한 지역상생 프로그램 ‘백련마실’도 운영된다. 백련문화센터 및 카페 10여 개소에서 문화·체험·판매 프로그램 즐기며 이 벤트를 통해 일로 카페 투어 할인권(20%)을 받을 수 있다.

27~28일 오후 8시부터는 문화해설사의 안내를 받아 청사초롱을 들고 고요하고 신비로운 생태 탐방로를 산책하는 ‘여름밤 연빛달빛야행(夜行)’이 진행된다.

行为)’이 진행된다.

축제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게시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무안여행 인증샷’ 이벤트와 ‘맛풀무안 SNS인증 이벤트, 한우 유포 나눔 행사, 우리 한돈 시식회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됐다.

이 밖에 ▲연차 시음 및 햄다 시연 ▲연꽃 족욕 체험 ▲신비의 연꽃 보트탐사 ▲황토맨발길 걷기 ▲제17회 황토골 무안요리 경연대회 ▲어린

이 독서 골든벨 대회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김산 무안군수는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 열리는 만큼, 연꽃을 대신할 다채로운 볼거리·즐길거리를 준비했다”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군민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 기자〉

완도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 성료

미국·이탈리아·프랑스 등 13개국 참가

‘지속가능 해조류 블루카본’ 선언문 채택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완도에서 ‘2025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25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나흘간 ‘힐링 종회와 힐링 타임(Healing General Assembly, Healing Time)’이라는 주제로 ‘국제슬로시티연맹 시장총회’가 열렸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통과 자연을 보전하며 ‘느낌의 삶’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목표로 33개국이 입장돼 있고, 총회는 슬로시티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올해 총회에는 미국, 이탈리아, 폴란드, 프랑스 등 13개국 시장과 대표단이 참가했다.

지난 19일에는 참가자들이 완도를 둘러보며 환경과 문화를 접하고, 20일에는 해양치유 설명

회와 기후·숲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완도호랑가시나무’ 퍼포먼스와 창시자 현정 비빔 샐러드 퍼포먼스, ‘복닭복닭 파티’도 큰 호응을 얻었다.

21일에는 생활문화센터에서 공식 일정이 진행됐고, 신규 슬로시티 인증과 함께 ‘슬로시티를 위한 인증지능’ 등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완도군과 국제연맹은 ‘CITTASLOW FOR SEA, 지속가능한 해조류 블루카본’ 선언문을 발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마지막 날에는 청산도에서 한국 전통 놀이와 문화를 체험하며 총회를 마무리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총회는 완도가 보유한 해양치유와 문화·수산 등 다양한 자원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슬로시티 완도의 가치를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함평군, 김밥김 우크라이나 수출 길

16만 달러 계약 체결

함평군이 김밥김 16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식품 시장 판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유통업체 ‘VICUNAI-UKRAINA LTD’와 김밥김 16만 달러(2억여원)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전날 상차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출은 함평군이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 ‘SIAL Paris 2024’에 참가해 우크라이나 바이어와의 첫 상담을 시작한 이후 수개월간의 협의를 이어온 끝에 성사된 성과다.

함평군은 2023년 태국 방콕 식품박람회 참가

를 시작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 6개국 국제식품 박람회에 연이어 참가하며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힘써왔다.

그 결과 프랑스 유통업체와 10만 달러(1억여원) 규모의 나비쌀 수출 협약을 체결해 18%의 수출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샤인머스켓, 도시락 김 등 다양한 농특산물을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등지에 성공적으로 수출하며 ‘글로벌 K푸드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현재 캄보디아와 러시아 바이어들과도 활발한 김수출 상담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상차식을 가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K HC(Korean Food Hampyeong County)’ 브랜드를 중심으로 함평 농특산물의 세계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함평=김연수 기자

진도, 청사 앞 ‘녹색 휴게공간’ 조성

진도군은 25일 “청사 앞에 방치됐던 유휴지를 최근 자연 친화적인 녹색 휴게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해 군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기존 유휴지는 콘크리트 바닥과 계단만 설치된 단조로운 구조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이번 소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틈바꿈했다.

휴식 공간에는 ▲원형 정원과 안개분수 ▲계절감 있는 화초류·관목 식재 화단 ▲다채로운 열대풀 화분과 화사한 관람석(스탠드 계단) 등이 설치됐다.

특히 안개분수는 여름철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기온 완화 효과와 더불어 시각적 청량감을 제공하는 등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진도=박세권 기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 특성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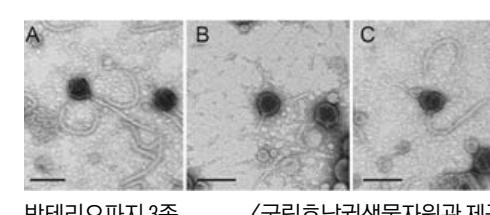
세균 천적…항생제 대체제 상용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5일 “비브리오균을 표적으로 하는 신종 박테리오파지 3종을 국내 새우 양식장에서 분리한 후 특성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미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전남 진도 지역 새우 양식장 배출수에서 분리한 박테리오파지 3종에 대해 형태학적 특징, 유전체 구성, 감염 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특성을 규명했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감염시켜 죽이는 바이러스로, 세균의 천적으로 불린다.

특히 특정 비브리오균에 대해 낮은 농도에서



박테리오파지 3종.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공〉

도 높은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다양한 비브리오균에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단독 제제 또는 파지 혼합제 개발의 핵심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비브리오균은 헨더리새우를 비롯한 주요 양식 종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원균이다. 확보된 박테리오파지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브리오균은 헨더리새우를 비롯한 주요 양식 종에 피해를 주는 주요 병원균이다. 확보된 박테리오파지는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연구의 기반 기술은 2023년 3건의 특허를 출원한 바 있으며, 상용화를 위한 기술이전 후 항생제 대체제와 사료첨가제 등의 친환경 수산용 제제로의 상용화가 추진 중이다.

연구 담당자인 류상돈 전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국내에 자생하는 박테리오파지를 활용해 병원성 비브리오균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한 것”이라며 “나주 농수산식품의 지속적인 해외 판로 개척과 안정적인 수출 기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 호주, 프랑스를 비롯한 8개 국가와 총 570억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농수산식품의 글로벌 진출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나주=정종환 기자〉

영광군, 여름철 자연재난 선제 대응체계 구축

유기적 협력·비상근무체계 등 논의

영광군은 25일 “지난 23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3개 실과소단,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제382-2-2대대,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 및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가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본격적인 장마와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 맞아 재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 여름철 기상 현황·전망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중점 추진사항·관리사항 ▲비상근무체계 등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비상근무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영광군은 지난 2차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 사항을 분석하고, 관내 하천,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등 취약지에 대한 사전 점검 및 현장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읍·면 및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상황 전파와 대응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자연재난은 사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